

## FLES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sup>(1)</sup>

田 相 範  
(英語教育科)

FLES(Foreign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는 요즘 英語教育에 중사하는 사람들의 세계적인 關心事이고,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sup>(2)</sup> 早期英語教育은 세계적인 유행이기도 하다. Gage and Ohannessian(1974)에 의하면 국민학교에서 英語를 가르치고 있는 나라수는 43여개국에 이른다.<sup>(3)</sup> 이 통계는 1973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동안의 추세와 또 사립학교까지를 넣으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양인석(1980) 교수가 지적한 대로, Gage and Ohannessian의 통계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구라과대륙에서의 早期英語教育의 보급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아세아에서의 早期英語教育의 보급은 과거 식민지 통치의 잔재로 볼 수 있는 수동적인 보급임에 반해, 구라과에서의 早期英語教育의 보급은 완전히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구라과 25개국 중 10개국에서 早期英語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早期英語教育의 유행은 이민 간 어린이들의 기적과 같은 外國語習得能力과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 부모의 外國語學習能力의 대비에 힘입은 바 크다. 이민간 어린이들은 별다른 노력없이도, 또 어린이의 知能에 상관없이, 그저 동리 어린이들과 놀고있기만 해도 짧은 기간 안에 동리 어린이들 못지 않게 그 고장 말을 할 수 있는데 비해, 그 부모는 상당한 교육이 있고, 또 상당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발음과 낮은 수준의 外國語習得에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관찰에 더해, 어린이가 어른들 보다 生理的으로 外國語學習에 더 유리하다는 증언이 早期英語教育을 부채질 한 바 있다. Lenneberg와 그의 추종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腦柔軟理論(The Brain-Plasticity Theory)」이라는 것에 입각하여, 外國語는 정해진 때에 배워야 한다는 「決定的時期假說(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이 나오게 되었다. Lenneberg는 1967년의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와 Lenneberg(1964)에서 腦細胞와 言語發達에 관해 몇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1) 이 논문은 1980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1978년 한글학에서 개최한 조기영어교육 세미나 등.

(3) (q. 양인석(1980:50)).

우선 그는 어찌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같이 생후 18개월과 28개월 사이에 말을 시작하는가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는 이 시기야말로 腦細胞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때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腦의 왕성한 발달은 13세경까지 계속되는데, 2세부터 思春期까지의 이 시기가 동시에 言語習得의 決定的 時期라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이라면 액센트 없는 外國語의 習得이 용이하나, 13세를 넘어 思春期에 들어서면 예전처럼 外國語에 노출시키기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外國語를 배우는 일은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Lenneberg는 두개의 증거를 들고 있는 바, 첫째는 言語機能의 側面化(lateralization)에 관련된 몇가지 事例들이다. 腦의 左側前半球가 言語機能을 담당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인해 腦의 左側前半球가 손상을 입게되는 경우, 失語症(aphasia)을 비롯한 여러가지 言語障礙를 일으키게 되는데, 손상을 입게되는 연령에 따라 言語障礙를 일으키는 정도가 같지 않다. 지금까지의 臨床報告에 의하면, 손상을 입는 나이가 어릴수록 言語障礙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까닭은 左側前半球가 담당하고 있던 機能이 腦의 오른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이같은 機能의 轉移(transfer)는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진다. 어릴 때에는 左側前半球가 주로 言語機能을 담당하지만 오른쪽도 수동적으로나마 言語機能을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腦의 左右半球의 分業化(polarization)와 專問化(specialization)가 진행되어 思春期에 이르게 되면 이같은 側面化가 완료되는 까닭에, 13세를 지나서 左側前半球에 손상을 입는 경우, 대개는 機能의 轉移가 이루어지 않아 영원히 言語機能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이처럼 側面化가 13세경에 완료된다는 것이 決定的 時期假說의 하나의 증거라고 Lenneberg는 말한다.

決定的 時期假說의 또 하나의 증거는 腦半球切除手術(hemispherectomies)의 결과에 대한 臨床報告들이다. Basser(1962)에 의하면 右半球의 切除手術이 어른보다 어린이의 경우에 더 많은 言語障礙를 일으키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20명의 言語障礙者 중 7명(35%)이 右半球切除의 결과이며, 어른의 경우에는 Russell and Espir(1961)의 보고에 의하면 단 3%만이 右半球切除의 결과였다. 한편 Basser(1962)는 지금까지의 臨床報告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의 경우 左半球切除手術의 결과 言語障礙를 일으킨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어른의 경우 左半球切除手術에도 불구하고 左半球의 言語機能이 완전히 右半球로 轉移된 예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Lenneberg는 어린이의 경우 言語機能을 주로 담당하는 左半球를 切除했음에도 불구하고 言語障礙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린이의 경우 側面化가 완료되지 않아 左半球로부터 右半球로의 轉移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言語習得은 2~13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Penfield and Roberts(1959)도 Lenneberg와 마찬가지로 생각이나, 다만 그들은 側面化가 끝나는 나이를 9세로 잡고 있다.

Lenneberg와 그 추종자들의 決定的 時期假說은 外國語教育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Krashen (1973)은 Basser의 자료를 재검토하고, 右半球의 손상때문에 言語障礙가 일어난 것은 모두 5세 이전이었으며, Basser의 보고중 유일한 예외는 10세였는데, 그 때는 言語障礙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左半球切除手術에도 불구하고 言語障礙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모두 5세 이전의 경우였다. 이 같은 사실들은 분명히 側面化가 Lenneberg나 그의 추종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서 言語習得의 決定的時期는 Lenneberg의 주장과는 달리 2~13세가 아니라 2~5세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Krashen의 반박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兩分聽覺(dichotic listening)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生理學에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오른쪽 귀는 腦의 左半球에, 왼쪽 귀는 右半球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낱말은 곧장 言語機能을 담당하는 左半球로 들어가 해석이 되지만, 왼쪽 귀로 들어오는 낱말은 일단 右半球로 갔다가 다시 左半球로 가야하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를 가게 된다. 따라서 좌우편 귀에 각기 다른 단어, 예를 들어 오른쪽 귀에다 boy, 왼쪽 귀에다 girl 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들려주고 그 결과를 물으면, 대개의 경우 오른쪽 귀로 들은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물론 腦機能의 側面化의 결과이며, 만약에 側面化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낱말들의 聽覺에서 더 뛰어날 이유가 없다. 여러 연구들(Berlin, Lowe-Bell, Hughes, and Berlin(1972); Harshman and Krashen(1972))에 의하면 4세부터 9세까지의 어린이들에 대한 兩分聽覺의 실험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결과는 어른들에 대한 실험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側面化는 이미 4세에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실험결과들이 사실이라면 決定的時期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側面化를 決定時期 결정에 대한 生理學的 근거로 잡는다면, 그 시기는 2~4세, 혹은 2~5세로 잡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 어린이들은 많은 統辭論의 지식을 習得하게 되지만, 결코 그 習得이 이 기간 중에 끝나는 것도 아니며, 音韻論과 意味論에 속하는 지식의 習得도 결코 이 기간 중에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이 기간 중에만 言語習得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강한 주장이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이는 側面化가 태어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Krashen(1975)).

엄격한 側面化에 도전하는 증거가 左右半球分離手術(split-brain)의 결과에 대한 臨床報告에서 얻을 수 있다. 심한 간질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左右半球를 연결하고 있는 통로를 외과적으로 切斷手術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는데, 그 결과 左右半球는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없는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존재가 된다. 이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왼손에다 사과를 쥐어주면 그는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다. 비록 그의 왼손은 사과를 느끼고, 따라서 그의

右半球는 사과를 식별하지만, 그 정보를 言語機能을 담당하는 左半球로 전달할 길이 없어 사과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오른 손에 바나나를 쥐어주면 오른 손이 감지한 정보가 左半球로 전달되어 환자는 바나나를 묘사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腦機能의 側面化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실험결과들은 左右半球分離手術을 받은 환자의 경우 側面化가 생각처럼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perry and Gazzaniga(1967)는 비록 左半球만은 못하지만, 右半球도 상당한 言語機能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Moscovitch(1976)는 右半球가 잠재적인 言語機能을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고 보면 幼兒期 이후의 인간의 腦에는 Lenneberg나, Penfield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柔軟性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Lenneberg의 決定的 時期假說을 고집한다면, 思春期 이후의 言語學習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決定的 時期假說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Lenneberg의 生理學的 증거들이 어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言語學習에 실제로 종사한 사람들의 실험결과보고도 이런 간 어린이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기적이 힘들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어릴수록 말을 더 쉽게, 더 잘 배우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를 느낀다. 실제로 여러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어린이들이 결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말을 쉽게,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린이들이 母國語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試行錯誤를 발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Lee(1973)가 지적한 대로, 母國語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外國語를 배우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보다 집중적으로 言語에 노출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세 사이의 5년 동안에, 하루 평균 5시간씩의 정상적인 言語環境 속에 있는 어린이는 도합 9,000시간 言語에 노출되는데 비해, 캘리포니아의 軍言語學校(Army Language School)의 성인이 越南語를 本國語와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1,300시간이었다(Burke (1974)). 이 점은 이런 간 어린이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言語에 대한 노출시간의 차이말고도, 이런 간 어린이는 어른과 다른 言語學習의 動機를 가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루 종일을 이런 간 고장의 어린이들과 놀아야 하는 어린이에게 言語習得은 生死와 관련된 일인 반면, 어른의 動機는 이처럼 절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의 動機가 어른보다 낮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어린이와는 달리 어른은 대개 자기 母國語를 하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며, 그 친구들과 자주 만남으로써 外國語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린이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다.

한편 外國語에 대한 態度에 있어 어린이와 어른이 같지 않다. 이미 自我가 발달하고 文

化的 自意識이 발달한 어른은, 外國語學習에 대해 무의식 중에 어린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여러 제한을 스스로에게 가하게 된다.

이러고 보면 外國語學習에 있어 어른들 보다 어린이가 더 뛰어난 것 처럼 보인 것은 Lenneberg가 주장하듯이 生理學的인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어린이가 처해있는 社會的인, 또는 心理的인 要因들이 더 큰 몫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社會的인, 또는 心理的인 要因들이 통제될 때, 어린이들 보다는 나이 든 쪽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낳게 된다. 다음에 소개할 예들은 어릴수록 外國語學習에 유리하다는 것이 한낱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흥미롭고 대표적인 연구는 Asher(1969)의 실험일 것이다. 그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外國語의 네 機能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능력을 동시에 기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종래의 聽取發話論者(audio-linguist)들이, 우리는 들어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할 수 있으며, 또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는 것만을 식별해 듣는 고로,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을 생각하면, Asher의 주장은 매우 당당한 것이 된다.

만약에 네 機能을 동시에 다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점적으로 길러야 하는데, 이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轉移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機能을 골라야 할 것이다. 그는 듣기의 機能이 가장 높은 轉移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또 이 사실이 어린이가 母國語를 배우는 과정과도 일치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상당히 복잡한 문장도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Asher의 주장이 옳다면, 듣기에서 어린이와 어른 어느 쪽이 더 잘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곧 外國語學習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해답이 된다.

Asher는 미국으로 이민 온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外國語를 더 빨리 더 쉽게 배우는 것은, 어른들의 外國語習得이 靜的인 상황에서, 다시 말해 근육조직과 言語使用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반해서 어른들은 動的인 상태에서, 다시 말해 신체적 반응이 言語使用과 연결된 상태에서 말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어른들도 지금까지 처럼 놀이나 행동, 또는 신체적 반응이 없는 學習 대신, 온 몸의 근육조직을 言語使用과 연결시키는 상황에서 外國語를 배우게 되면 어른들도 어린이 못지 않은 성과를 올릴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실험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가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全身反應方法(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이라고 불리는 그의 실험은, 露語로 된 명령문을 미리 녹음해 두었다가 틀어 놓은 다음, 교사는 아무 설명없이 그 명령대로 행동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보아 두었다가 나중에 학생들 자신이 교사의 시범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명령문은 처음에는 鼻音節로 된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복잡한 것이

된다. 그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학생들에게 앞서 배운 것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는 나이와 듣기의 능력이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명령문의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를 불문하고 일정했다. 이처럼 Asher의 실험결과는 신체적 반응이 言語사용과 연결되기만 하면, 어른이 어린이보다 듣기 능력에서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Asher and Price(1967)에서는 학생들을 네개의 집단(2, 4, 8학년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그들의 外國語學習能力을 비교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두 露語를 전혀 모르는 미국학생들로서, 이들에게 앞서 언급한 全身反應方法으로 露語를 가르친 결과, 나이가 많을 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월등히 좋은 대학생의 성과는 外國語學習能力이 거의 나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sher는 어린이들의 外國語學習能力에 대한 일화들은 非言語學的, 非生理的 要因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어린이의 外國語習得能力에 관한 신화를 부인하는 보고들은 얼마든지 있다. Braine(1971)은 外國語學習에서 어른이 어린이보다 우수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Politzer and Weiss(1969)는 교실에서의 外國語學習에서 나이든 어린이들이 아주 어린 어린이들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주며, Ervin-Tripp(1974)는 하루의 대부분을 外國語만 듣는 환경 속에서도 아주 어린 어린이들 보다는 나이가 좀 든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음을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社會的, 心理的 要因을 같게 한다면 어른이 어린이 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슬한 보고들 속에, 外國語教育은 어릴 때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의 전부가 發音에 관련된 주장들이다. 여기서도 가장 흥미롭고 대표적인 것은 Asher and Garcia(1969)의 보고이다. Asher는 앞서 보아온 대로, 여건만 같으면 어린이보다 어른이 外國語學習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바이지만, Asher and Garcia(1969)의 실험보고는, 發音에 관한 한 外國語發音은 일찍 시킬수록 좋으며, 發音의 正確度는 外國語學習을 시작하는 나이와 엄격히, 그리고 정확히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미국에 이주해 온 7세부터 19세까지의 71명의 Cuba 학생들과 또 미국학생들에게 네개의 英語 문장을 읽게 하여 녹음한 것을 순서없이 섞은 다음 다른 미국학생들에게 다음의 네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하게 하였다.

- A. native like
- B. near native like
- C. a slight foreign accent
- D. a definite foreign accent

그는 그 결과를 Cuba 학생들이 미국에 이주해 온 때의 나이, 미국에서의 체재기간, 성별들

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첫째, 몇살 때 이주해 왔건(1~6세), 또 그 후 몇년을 미국에서 살았건(1~8년), 71명의 Cuba학생 중 native speaker와 꼭 같은 발음을 하여 A의 판정을 받은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둘째,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B(near native like)로 분류되었는데, B의 판정을 받기 위한 가장 높은 가능성은, 미국에 이주해 온 나이가 1~6세 사이이며, 거주기간이 5~8년 때가 가장 높았다.

셋째, 발음성적은 이주해 온 때의 나이와는 반비례했으며, 거꾸로 거주기간과는 정비례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6세 사이에 이주해 온 어린이의 68%가 B로 분류되었고, 7~12세의 경우에는 41%,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 7%만이 B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6세 이하일 때 이주해 온 어린이는 미국사람과 거의 같은 발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13세 이후에 이주해 온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거주기간과의 관계를 보면, B로 분류되는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높았으며, 4년 이하일 때는 낮다는 것을 그들의 실험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들의 실험은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약 2:1의 비율로 우세함을 나타내고 있으나, 거주기간이 5~8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줄어든다.

그들은 그들의 실험결과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의 시도로서 生理學的인 이유도 일단은 고려하고 있으나, 소수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 英語를 시작한 경우에도 외국인과 거의 같은 발음을 하는 경우를 들어 그 가능성을 철회하고, 대신 발음이라는건 모방에 의한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Asher and Garcia 외에도 어릴 때 外國語를 배워야 발음이 좋아진다는 조사보고는 많다. Oyama(1976)는 미국에 사는 60명의 이태리 이민을 조사하여, 어릴 때 이민 온 경우일수록 발음이 좋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外國語는 어릴 때 시작할수록 더 쉽게, 더 빠르게 배운다는 것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며, 이 같은 決定的 時期假說 뒤에 있는 生理學的 증거들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여러 실험들의 보고에서, 만약 어린이가 어른들보다 外國語學習에서 더 유리하다면 그것은 生理學的인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에 연유할 것이라는 시사도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外國語學習의 成敗를 가능하는 要因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要因들에 입각하여 어린이와 어른의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이 要因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Mackey(1965:99-134)는 그 要因을 言語的, 社會的, 心理的 要因으로 나눈다. 言語的 要因이란 주로 母國語와

배우려는 外國語의 異同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의 우리 목적을 위해서는 상관어 없다.

다음 社會的인 要因은 接觸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경우 큰 차이가 없으므로 깊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음 心理的인 要因으로서 年齡(age), 動機(motives), 生得機能(native skill), 知能과 人性(intelligence and personality), 記憶力(memory span), 準備性(readiness), 動因(drive) 등을 들고 있다.

Pimsleur는 여러 곳(Pimsleur(1961:16), (1966:182-183), (1968a:73), (1968b:98-106))에서 이 要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즉, 言語知能(verbal intelligence), 動機(motivation), 聽覺能力(auditory ability) 등이다. 言語知能이란 어휘력과 언어자료에 대한 추리력을 말하며, 動機란 학습자의 흥미, 그리고 聽覺能力이란 음성식별력을 의미한다.

Muskat-Tabakowska(1969:43)는 情報理論(information theory)에서 사용하는 騒音(noise)이라는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要因은 記憶力(memory limitation), 動機(motivation), 興味(interest), 身體的, 心理的 條件(physical and psychical conditions), 其他(etc.) 등이다.

한편 Lambert는 Lambert((1961:155-156), (1963:43)) 등에서 知的能力(intellectual capacity), 態度(attitude), 動機(motivation)의 셋을 要因으로 들고 있다.

끝으로 Jakobovits(1968:108)는 言語學習能力이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이지만 그 속도는 개인차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그 要因을 一般知能(general intelligence), 經驗(experience), 健康(physical health), 動機(motivation), 其他(etc.)로 나누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要因들은 그 輕重의 차이는 있으나 그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外國語學習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 경우에 접치는 다음 다섯가지를 外國語學習의 主要 要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記憶力(memory span), 知能(intelligence), 動機(motivation), 態度(attitude), 適性(aptitude).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다섯가지를 外國語學習의 主要 要因이라고 할 때, 그것이 年齡과 어떤 相關關係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記憶力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여러 心理學者들은 記憶力은 나이와 비례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Miller(1951:210)는 나이에 따라 암기할 수 있는 자릿 수(digit)가 증가한다고 말하고,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No. of Digits	Age
1.....	2
2	



3.....	3
4.....	4
	5
	6
5.....	7
	8
	9
6.....	10
7.....	
8.....	16~20

한편 Mackey(1965:131)도 記憶力이 年齡에 따라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 20세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20대에는 현상을 유지하며, 30세부터는 감퇴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Deese(1958:246)도 나이와 記憶力이 비례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記憶力에 관한 한, 外國語學習은 그 시작이 어릴 때 일수록 좋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된다.

둘째로, 知能의 단위인 IQ는 15세까지는 대개 높아지고, 그 이후 20~30세까지는 별 변동이 없다가, 그 후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Hebb(1966:187-204)). 知能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IQ가 절정에 달해서 안정되는 15세가 外國語學習을 시작하는 最適期라고 해야 할 것이다.

知能이 外國語學習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Pimsleur(1968a:74)는 16%(.40), Asher(1969:16)는 약 20%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Mackey(1965:123)는 理解에 있어서의 知能의 역할을 인정하되, 外國語學習 전반에 있어서의 IQ의 기능을 그리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눈치다. 그는 그 증거로서 低能兒(imbecile)에게 佛語를 가르친 P.F. Angiolillo의 실험결과를 예로 들고 있다.

셋째로, 動機는 학자들에 따라 그 분류가 다양하나, 그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듯 하다. Melton(q. Hilgard(1956:340))의 말처럼 動機는 어떤 개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그 개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활동을 선택하게 해준다.

Lambert(1963:41)는 動機를 道具的(instrumental)인 것과 統合的(integrative)인 것으로 나누고, 후자가 더 성공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전자는 外國語를 어떤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런 목적없이 자기가 배우는 外國語에 대한 호감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이다.

統合的動機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큰 개인차를 보이지 않겠지만, 어른의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활경험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보다 개인차가 클 수 있다. 그러나 道具的動機는 공부하는 장소와 개인에 따라 심한 개인차를 보일 것이다. 미국으로 이민 간 어린이와 우리나라에서 英語를 배우는 어린이의 道具的動機가 같을 수 없으며, 중학교 입학시험에

英語시험이 과해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動機가 같을 수 없다. 이 같은 개인차는 어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Pimsleur(1968a:74)는 外國語學習에 대한 動機의 영향력을 16% 정도로 보고 있다.

外國語學習에 있어 어떤 다른 要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態度이다. 態度는 어떤 外國語에 대한 어떤 개체의 개별적인 접촉경험에서 보다는 그 개체가 놓여있는 환경, 즉 가족, 사회, 민족의 態度에서 영향받는 바가 더 크다. 어떤 外國語에 대한 좋진 나쁘진 간의 편견은 나이가 들수록 커질 것이다.

끝으로 중요한 要因은 適性이다. 外國語學習에 있어서의 適性の 문제는 주로 Pimsleur(1968a)와 Carroll(q. Lambert(1963:35-36))에 자세히 다룬다. Pimsleur(1968a:73)는 言語適性 속에 (1) verbal intelligence, (2) motivation, (3) auditory ability의 셋을 들고 있으며, Carroll은 (1) phonetic coding, (2) the ability to handle "grammar", (3) rote memorization ability, (4) the ability to infer linguistic forms, rules and patterns from new linguistic content 등을 들고 있다.

適性は 나이보다는 개인차에 의해 좌우될 터이지만, Pimsleur의 분류에 따르면 Carroll의 입장을 따르면, 어린이 보다는 나이 든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外國語學習의 成敗를 가능할 다섯가지 要因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나이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피상적으로 알아본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대개의 경우 그 要因들은 어린이에게 보다는 나이 든 쪽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는 다시 그 要因들과 年齡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記憶力은 학습자의 나이가 30을 넘지 않은 한, 어린이 보다는 나이 든 쪽이 유리하다. Fraser, Bellugi, and Brown(1963:121-135) 등은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에 있어 理解(comprehension)가 發表(production) 보다 앞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후자가 전자보다 더 많은 기억력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記憶力이 더 뛰어난 성인이 문장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있어 어린이보다 더 유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知能도 30세가 지나 外國語를 배우기 시작하지만 않는다면 어른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動機는 경우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外國語를 배우는 어린이의 學習動機를 미국에 이만한 어린이의 學習動機와 마찬가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학교에서 英語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쳐서 성적을 내게 한다면 道具의 動機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학교에서 실시했던 英語教育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중의 하나가 動機誘發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된다.

넷째, 배우려는 外國語에 대한 態度는 어린이보다 어른의 경우에 더 큰 편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나이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일 것이다.

끝으로 言語適性도 어린이 보다는 나이든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外國語學習에 있어서의 年齡의 문제를 몇 가지 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고, 흔히 생각하듯이 外國語가 어릴 때 배우기만 하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그냥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야 할 것은, 실제로 어린 나이의 학습자에게 外國語를 가르쳐 본 여러 실험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FLES가 국가적인 지원하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다. 1960년은 미국에서의 FLES교육의 절정기였다. 그러나 미국이 처음부터 外國語學習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 제 1 차대전이 일어났을 무렵, 外國語, 특히 獨語에 대한 미국사람들의 반감은 대단했으며, 23개 주에서 外國語教育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1950년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제 2 차대전중, 그리고 전후에 外國語 기능자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고, 특히 1958년에 통과된 NDEA(National Defence Education Act)에 힘입어, 1960년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外國語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9년에는 FLES교육을 받던 학생수가 2,000명이던 것이 1960년에는 1,227,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를 가져온 데에는 스푸트니크의 자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FLES의 유행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1956년의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의 모임이었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心理學者들은 外國語를 배울 最適期는 태어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때 사용된 교수법은 거의가 聽取發話法(audio-lingual method)이었다. 이 방법은 이 밖에도 army method, the aural-oral method, the natural method, the New Key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워졌으며, 전에 군인들의 外國語教育을 위한 ASTP(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1960년에 절정에 달했던 FLES는 그후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는 바, 그 원인을 알아보는 일은 FLES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Andersson(1969), Page(1966), Pillet(1974), McLaughlin(1978) 등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유능한 교사가 부족하였다. 교사의 모집, 훈련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많은 유명한 대학에서 듣지도 말도 못하는 外國語에 대한 자격증을 주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둘째, 학문에 대한 무기력과 타성이 큰 원인이 되었다. 전통적인 이론과 방법은 배격을 받고 사라졌으나, 새 이론과 방법은 저항을 받았다. 교사들은 새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교사훈련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

셋째, FLES가 새로운 것으로 도입될 때에는 흥분했던 사람들이 이 계획을 준비하고 계속해나가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의 정열이 사라지자 이 계획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냉담해졌다. 교육의 질을 높여

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올린다는 데에는 일제히 반대했다. 그리하여 많은 학교에서 FLES는 한낱 과외활동으로 명목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그 비용은 학부모로부터 엄출하게 되었다.

넷째, FLES는 기대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다. 애들의 外國語習得은 心理學者들이 예견했던 것 보다 느렸으며, FLES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이민자녀들과 닮은 데가 없었으며, 따라서 몇달 만에 外國語를 習得한다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애들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外國語를 힘들어 했다.

다섯째, 聽取發話法은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母國語사용을 전적으로 피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제한되었으며, 설명을 듣기 보다는 정해진 자료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데 숙달된 어린이들은 경우에 따라 알맞은 표현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 공부라면 으레 책을 연상하던 학생들은 얼마 후에는 外國語 學習을 놀이 정도로 우습게 알게 되었다.

여섯째, 어린이의 認知發達(cognitive development)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나이에 든 학생들도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끝으로, FLES교육에 대한 평가가 소홀하였다. 많은 계획들이 사전평가 없이 진행되었다. 평가를 제대로 하자면 돈과 시간이 든다는 것이 그 원인이기도 했다. 그나마 대부분의 평가는 聽取發話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보다는 이 방법에 대한 교사의 충성도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다.

FLES에 대한 몇가지 평가가 보고되었다. Pillet(1968)는 FLES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Page(1966)도 매우 비판적이다. 이들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학습이 별 소득이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聽取發話法은 만능이 아니었으며, 어린이의 動機誘發도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학년의 놀이 분위기가 사라지고 3,4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보다 文型을 강조하는 연습이 늘어나자, 어린이들은 外國語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 게다가 중학교에 갔을 때 국민학교에서의 FLES의 경험이 오히려 헛디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Vocolo(1967)는 FLES를 경험하고 중학교에 온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같은 또래의 지능을 가진 다른 학생들보다 外國語가 더 뛰어났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극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다.

FLES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에 二重言語教育(bilingual education)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수 민족이 모여 사는 미국과, 英佛 두 言語가 사용되는 캐나다에서 가장 충실하고, 이 두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FLES와 二重言語教育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후자의 목표는 外國語와 母國語를 모두 가르치는 것이지만, 전자의 목적은 外國語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 두 나라에 있어서의 二重言語教育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FLES를 규명하고자 하는 우리 목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二重言語教育은 배우고자 하는 外國語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이름하여 全體浸水計劃(total immersion program)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학생들은 종일 배우려는 外國語 속에서 살게 된다. 교사들은 그 外國語를 母國語로 사용하면, 학생들은 外國語 이외의 모든 과목을 그 外國語로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은 시도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들과의 접촉 속에서 자연스럽게 外國語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의 대표적인 예는 Lambert and Tucker(1972)에 The St. Lambert project로 소개되고 있다. Lambert와 Tucker는 종래의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이, 外國語教育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外國語를 너무 기계적으로 非母國語 사용자인 교사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두번째는 部分浸水計劃(partial immersion program)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종일을 外國語로 공부하는 全體浸水計劃과는 달리, 여기서는 만나질만 外國語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母國語로 공부하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Coral Way국민학교, 텍사스주의 Laredo국민학교에서 시행한 방법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번째는 混合計劃(mixing program)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外國語와 母國語 모두를 듣고 쓰게 된다. 서부 백립에 있던 John F. Kennedy국민학교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학생은 독일 학생과 미국 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은 獨語와 英語중 어느 것이든지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였다. 시간 중에 교사는 英語와 獨語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심지어는 한 문장을 獨語와 英語 단어를 섞어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대해 獨語와 英語 중 어느 것으로 대답해도 무방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질문이나 대답을 번역해 주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세가지 방법에 의한 二重言語教育의 결과를 소상히 알아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대로 全體浸水計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St. Lambert計劃이다. Lambert and Tucker(1972)는 이 계획의 처음 5년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이다. 학생들은 전과목을 佛語로만 배우며, 2학년애 가서야 비로소 英語를 배우기 시작한다. 1학년 말에 시행한 평가에서 實驗集團의 어린이들은 英語사용 比較集團에 비해 英語의 어휘, 읽기에서 뒤떨어졌으나 이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實驗集團의 어린이들이 英語를 전혀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佛語사용 比較集團과 비교해 볼 때, 佛語의 전반적인 기능에서 實驗集團의 어린이들이 뒤떨어졌다. 그러나 단어의 식별, 문장의 이해, 語順 등에서는 別差가 없었다. 산수에 있어서는 英語·佛語사용 比較集團의 어린이들과 차이가 없었다.

2학년 말에서 시행한 평가에서는 實驗集團의 어린이들이 英語에 있어 比較集團의 어린이

들과 같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綴字에 있어서는 比較集團이 위였다. 그러나 어휘에 있어서는 實驗集團이 위였다. 이것은 아마도 佛語로 부터의 轉移의 탓인듯 하다. 實驗集團의 어린이들은 2학년에 올라와서 35분짜리 英語수업을 매일 두번씩 받았던 것이다. 佛語에 있어서는 아직도 實驗集團이 佛語사용 比較集團보다 뒤떨어졌다. 특히 문법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發音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산수는 實驗集團의 성적이 英語사용 比較集團의 성적보다 위였다. 이것은 아마도 산수를 外國語로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긴장해서 철저히 공부한 탓일 것이다.

3,4학년 말에 시행한 평가에서는 佛語에 있어 實驗集團과 比較集團의 간격이 더욱 좁아졌다. 4학년 말에 가서는 實驗集團의 어린이들이 佛語의 기능면에서 평균점 이상을 받았다. 사용하는 문장은 佛語사용 比較集團의 어린이들 보다 더 단순하였지만 더 정확하였다. 英語와 산수에 있어서는 英語사용 比較集團의 어린이들과 같거나 더 뛰어났다.

St. Lambert計劃과 비슷한 것에 Ottawa計劃이 있다. Barik and Swain(1975)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계획은 1,000명의 英語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佛語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매 학년 말에 시행한 평가결과는 St. Lambert計劃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여준다. St. Lambert와 Ottawa計劃은 全體浸水방법이 FLES보다 월등히 우수함을 보여준 예들이다.

部分浸水計劃에는 Coral Way국민학교, Laredo국민학교의 예들이 있다. Coral Way국민학교에서는 오전에 미국인 교사가 전과목을, 오후에는 서반아인 교사가 전과목을 가르쳤다. 한편 Laredo국민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英語와 西班牙語를 반나절씩 나누어 쓰면서 전과목을 가르쳤다.

이 밖에도 部分浸水計劃에는 Ontario의 Elgin郡의 St. Thomas국민학교에서 시행한 Elgin計劃이라는 것이 있는데, Barik and Swain(1974)은 이計劃의 성과를 全體浸水計劃과 FLES와 비교 보고하고 있다.

학생들은 英語사용지역에 사는 27명인데, 이들은 오전에는 佛語로 전과목의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英語로 전과목의 수업을 받았다. 全體浸水計劃에서는 교사가 모두 배우려는 外國語의 母國語사용자였으나, Elgin計劃에서는 佛語와 英語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英語사용자들이었다. 또한 St. Lambert때와는 반대로, Elgin計劃에서는 1학년에서 英語의 읽기와 쓰기를 먼저 가르치고, 2학년에서 佛語의 읽기를 가르쳤다.

1학년 말의 평가에서 部分浸水教育을 받은 학생들은 英語로만 교육을 받은 FLES의 학생에 비교해서 認知, 英語, 산수에서 같은 성적을 나타냈으며, 佛語의 이해에서는 全體浸水教育을 받은 한살 밀의 유치원 애들과 같은 성적을 나타냈으며, 全體浸水計劃에 참가한 1학년 학생들 보다는 훨씬 못한 성적을 나타냈다. 한편 하루에 20~40분간 씩 佛語를 배우는 FLES의 학생과 비교해 볼 때 놀랍게도 佛語의 이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2학년 말의 평가에서 Elgin計劃의 어린이들은 FLES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佛語로 배운 산수에서 같은 성적을 나타냈으나 英語는 FLES의 학생들에게 뒤떨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2학년에 올라와서 처음 英語를 배우기 시작한 全體浸水計劃의 학생들보다도 英語가 뒤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佛語는 全體浸水計劃의 학생에게 뒤졌으나 FLES의 학생들 보다는 우수하였다.

3학년 말의 평가는 Elgin計劃의 학생들이 여전히 FLES의 학생들보다 英語가 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산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佛語는 全體浸水計劃의 학생에게 뒤떨어졌다.

混合計劃의 대표적인 경우는 서부 백림의 John F. Kennedy국민학교의 경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Mackey(1972)의 보고가 있다. 이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한마디로 말해 이 계획은 실패작이었다. 두 言語로 가르치므로 수업의 진도는 느렸고, 따라서 학생들은 지루해했다. 많은 미국학생들이 쓰는 독일어는 경상이 아닌 것이었으며, 많은 규율상의 문제도 대두하였다. 그 고장의 다른 국민학교보다 다섯 배나 많은 예산을 들인 이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外國語에 대한 노출의 정도에 따라 二重言語教育을 全體浸水, 部分浸水, 混合의 세가지로 나누었으며, 이 가운데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은 全體浸水計劃뿐이고, 混合計劃은 실패였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FLES의 결과는 이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글의 앞 부분에서 어릴수록 生理的으로 外國語習得이 유리한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 같은 假說이 매우 의심시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린이가 어른들보다 外國語教育에 더 유리하다면 그것은 보다 心理的인, 社會的인 이유에 연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은 外國語教育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두가지 시사를 준다. 그 첫째는, Asher가 한 것처럼 어른에게도 어린이가 향유하는 것과 같은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外國語教育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민 간 어린이가 보여주는 外國語習得의 기적이 生理的이라기 보다는 心理的, 社會的인 것이라면,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어린이에게 이민 간 어린이가 처하게 될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全體浸水計劃이 그 하나의 표현일 것이다. 더우기 發音만은 일찍 배우기 시작할수록 좋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보면, 가능하다면 全體浸水計劃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감안할 때, 유능한 교사도 없이 별 준비없는 상황에서 국민학교에서 1주일에 한두시간 정도 英語를 가르친다는 작업이 도로에 그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정말 外國語에 능한 기능인이 필요하다면, 각종 예능계 국민학교를 세우듯이 몇 개의 外國語 국민학교를 설치하여, St. Lambert 計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행하는 길 뿐이다.

## Works Cited

- 양인석(1980), 영미 조기교육의 찬반론 「외국어교육논문집」 33-66, 외국어대학 외국어연수원.
- Andersson, T. (1969), *Foreign languages in the elementary school*,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Asher, J.J. (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3, 3-17.
- Asher, J.J. and Garcia, R. (1969), The optimal ag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53, 334-341.
- Asher, J.J. and Price, B.S. (1967), The learning strategy of a total physical response: Some ag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38, 1219-1277.
- Barik, H.C. and Swain, M. (1974), English-French bilingual education in the early grades: The Elgin Study, *Modern Language Journal* 56, 392-403.
- Barik, H.C. and Swain, M. (1975), Three-year evaluation of a large scale early grade French immersion program: The Ottawa Study, *Language Learning* 25, 1-30.
- Basser, L.W. (1962), Hemiplegia of early onset and the faculty of spee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ffects of hemispherectomy, *Brain* 85, 427-460.
- Berlin, C.S., Lowe-Bell, R., Hughes, L., and Berlin, H. (1972), Dichotic right ear advantage in males and females—age 5 to 13.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53, 368.
- Braine, M.D.S. (1971), On two types of models of internalization of grammar. In D.I. Slobin (ed.), *The ontogenesis of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Burke, S.J. (1974),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12, 53-68.
- Deese, J. (1958), *The psychology of learning* 2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Ervin-Tripp, S. (1974), Is second language learning like the first? *TESOL Quarterly* 8, 111-127.
- Fraser, C., Bellugi, U., and Brown, R. (1963), Control of grammar in imitatio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 121-135.
- Gage, W. and Ohannessian, S. (1974), ESOL enrolment throughout the world, *The Linguistic Reporter* 16, 9.



- Harshman, R. and Krasher, S.D. (1972), An "unbiased" procedure for comparing degree of lateralization of dichotically presented stimuli,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52, 174.
- Hebb, D.O. (1966), *A textbook of psychology* 2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 Hilgard, E.R. (1956), *Theories of learning* 2d. ed.,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Jakobovits, L.A. (1968), Implications of recent psycholinguistic developments for the teaching of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18, 89-109.
- Krashen, S.D. (1973), Lateralization, language learning, and the critical period: Some new evidence, *Language Learning* 23, 63-74.
- Krashen, S.D. (1975), The development of cerebral dominance and language learning: More new evidence, in D.P. Dato (ed.),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Lambert, W.E. (1961), A study of the roles of attitude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N.D.E.A. Project Report, SAE-8817, Montreal, Canada.
- Lambert, W.E. (1963), Psych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47, 51-62, 114-121. Also in Haron B. Allen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25-49.
- Lambert, W.E. and Tucker, G.R. (1972), *Bilingual education of children: The St. Lambert experiment*, Rowley, Mass.: Newbury House.
- Lee, W.R. (1973), Language, experience, and the language teacher,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27, 234-245.
- Lenneberg, E.H. (1964), A biological perspective of language, in E. Lenneberg (ed.),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anguag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65-88.
- Lenneberg, E.H.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Wiley.
- Mackey, W.F. (1965), *Language teaching analysis*,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Mackey, W.F. (1972), *Bilingual education in a bilingual school: A study of equal language maintenance through free alternation*, Rowley, Mass.: Newbury House.
- McLaughlin, B. (1978), *Second-language acquisition in childhoo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iller, G.A. (1951), *Language and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Moscovitch, M. (1976), On the representation of language in the right hemisphere of right-handed people, *Brain and Language* 3, 47-71.

- Muskat-Tabakowska, E. (1969), The notions of competence and performance in language teaching, *Language Learning* 19, 41-54.
- Oyama, S. (1976), A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nonative phonological system,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5, 261-284.
- Page, M.M. (1966), We dropped FLES, *Modern Language Journal* 50, 139-141.
- Penfield, W., and Roberts, L. (1959), *Speech and brain machanism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llet, R.S. The impact of FLES: An appraisal, *Modern Language Journal* 52, 486-490.
- Pillet, R.A. *Foreign-language study: Perspective and prospec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msleur, P. (1961), Foreign language ability, in *Under-Achievement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N.D.E.A. Project OE-2-14-004, Report No. II, Columbus, Ohio.
- Pimsleur, P. (1966), Testing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A. Valdman (ed.),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Pimsleur, P. (1968a), Aptitude testing, *Language Learning* 18, 73-77.
- Pimsleur, P. (1968b), Language aptitude testing, in A. Davies (ed.), *Language testing symposium: A psycholinguistic approa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98-106.
- Politzer, R.L. and Weiss, L. (1969), Developmental aspects of auditory discrimination, echo response, and recall, *Modern Language Journal* 53, 75-85.
- Russell, W.R. and Espir, M.L.E. (1961), *Traumatic aph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perry, R. and Gazzaniga, M.S. Language after section of the cerebral commisures, *Brain* 90, 131-148.
- Vocolo, J.M. (1967), The effect of foreign language study in the elementary school upon achievement in the same langage in high school, *Modern Language Journal* 51, 463-469.